



##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 충남경제일지

## ['13.11.21]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전략 제시

- 21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목표·전략·핵심사업 등 보고 -

-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이 제시됨
  - 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도형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수행 중으로, 지역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과 주력산업 혁신역량 집중 필요성에 따라 추진
  - 이날 보고된 충청권 연계 협력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 상생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충청권의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설정
  - 추진전략은 ▲충청권 현안과 지역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충청권 선도·전략·신흥 산업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권역 내 부가가치 순환력 제고와 원자재 조달률 향상 및 관련 기업 육성 ▲지역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
  - 분야별 핵심사업은 ‘충청권 주력·선도·전략 산업 연계’ 부문에서 ▲IT기반 반도체 성장 거점화 사업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경부-중부 하이웨이(천안-청주-진천) 2차전지 산업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연계 활성화 추진 ▲충청권 철강/금속 소재 산업벨트 구축 및 뿌리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 제시됨
  - ‘충청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부문’은 ▲산업용 직류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직류배전 연계형 전력저장시스템(ESS) 실증 사업 추진 ▲직류배전 차단기 신뢰성인증 융합연구단 설치 ▲스마트 직류배전 기기 전력용 반도체 허브 구축 등 4개 사업이, ‘충청권 산업지원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는 ▲광역경제권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확대 ▲충청광역 행정본부 설립 및 운영 등이 제출됨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은 충청 지역의 산업과 미래산업 방향성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연구개발-테스트베드-상용화의 연계체제를 조화롭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한편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충청권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
  - 또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건의과제로 활용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와 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사업을 구체화 할 방침임

ISSUE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특별

## ['13.11.21] 道 '2013년 부정경쟁방지' 우수기관 선정

- 특허청 업무평가 결과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적 등 공로 인정 -

- 충남도는 특허청에서 실시한 2013년 위조상품 합동단속 및 대국민 계도활동 등 부정경쟁방지 업무 기관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둠
  - 이번 평가에서 도는 올 3/4분기까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에서 15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으며, 1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추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 도는 또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실무자를 초청,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 및 실무중심 사례 강의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옴
  - 도의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 위조상품 취급점의 광범위·분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도의 의지와 추진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도 관계자는 “시장의 특성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실정으로 우선 위조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함

## ['13.11.22] “중소기업 발전이 곧 지역 발전”

- 안희정 지사,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받아 간담회 가져 -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간담회를 가졌음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구자옥 대전·충남지역 회장, 류봉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음악회를 가진 뒤,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과제보고, 안 지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발전이 곧 지역 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안 지사는 이어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 3농혁신, 행정혁신, 내포신도시 등 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시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함

## ['13.11.24]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70% 넘는다”

- 22일 충남북부상위서 민·관 전문가 90여명 참가 합동워크숍 -
- 충남도는 2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도와 시·군, 취업지원서비스 및 인력양성 기관 등 일자리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함
- 이번 워크숍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핵심 과제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력양성 향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충남도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분석 ▲2013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대비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방향 설명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군별 컨설팅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충남도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분석에서는 최근 충남도의 취업자 증가율 및 상용근로자 증가율,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 실적 증가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주요요인을 살펴보고 더 나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실시됨
- 도내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7.6%가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12.3% 증가,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 실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137.2% 증가로 각 부문별 전국 1위를 달성
- 또 권역별 분임토의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취업알선서비스 제고방안, HRD네트워크 구성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져 다양한 발전방안이 도출됨
-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취업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도정에 접목하고, 도내 전 시·군을 아우르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남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함

## ['13.11.24] 충남 10월 한달 수출 62억불...역대 최고치

-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수출누계 540억불 기록 -
- 충남지역의 10월 한 달 수출실적이 무려 6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탄력에 힘입어 충남 수출이 상승장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도는 올해 10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 540억6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억100만 달러에 비해 6.0%(30억61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4일 밝힘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4637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551억8900만 달러)에 비해 1.9%(85억96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 수출이 전국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음
- 특히 지난 10월 한 달 총 수출액에서는 62억16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월간 기록으로는

최고 수출실적을 보였으며 수입액도 28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가 증가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충남의 올해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했으며, 지난해 동기간 무역 흑자액 232억 달러보다 26억5500만 달러가 늘어난 258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356억5100만 달러)를 이끌었음
- 품목별로는 반도체(5.4%), 컴퓨터(13.5%), 무선통신기기(76.1%) 등 IT 관련 품목이 미국, 중국 등 선진시장에서 선전
- 반면 도내 서북부 지역의 주력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 수요부진으로 중국(13.3% 감소), 슬로바키아(29.1%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의 수출 감소를 보였고, 석유제품은 필리핀(41.3% 감소), 베트남(79.6% 감소) 등 신흥 시장의 경기둔화로 10.8% 감소
-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반도체 142억 2200만 달러(5.4% 증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91억 1400만 달러(4.4% 감소) ▲전자응용기기 46억 7700만 달러(24.5% 증가) ▲석유제품 44억5000만 달러(10.8% 감소) ▲석유화학중간원료 29억3200만 달러(77.0% 증가) ▲컴퓨터 21억8700만 달러(13.5% 증가) ▲자동차부품 21억7700만 달러(17.1%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52억8700만 달러로 13.3%의 증가율을 보였고 ▲홍콩이 66억8000만 달러(8.4% 감소) ▲미국 42억3000만 달러(21.4% 증가) ▲대만 26억4700만 달러(23.8% 증가) ▲일본 25억 2600만 달러(15.5% 감소), ▲베트남 21억6100만 달러(18.3% 증가)가 순으로 집계
- 특히, 지난 5월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혜택 품목이 큰 합성수지(199.0%), 철강관(280.6%)이 크게 증가하는 등 터키로의 수출이 무려 70.1% 증가
-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9월(3.6%)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후 10월 들어 23.5%가 감소 하며 엔화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의 10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IT제품의 수출 증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과 신흥국 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은 낙관하기 어렵지만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12월 28일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1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3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함
- 이와 함께 도는 1월 10일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증대에 기여한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

## ['13.11.25] 고도기술 보유 日 3개사 투자유치

- IHI·ISEL·JCU 5000만 달러 투자, 천안·서산에 생산 공장 설립 -
- 핵심기술 국내 이전·전략산업 발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
- 충남도가 자동차엔진 터보차저 제조업체 등 고도기술 보유한 일본 3개 기업으로 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음
- 안희정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즈나가 케이야(満永 敬哉) IHI사 부사장, 국내합작투자사인 현대위아IHI터보 우남제 사장, 츠치타니 마사카즈(土谷 正一) ISEL사 부사장, 카스야 요시마사(粕谷 佳允) JCU사 사장, 전병욱 천안부시장, 추한철 서산부시장 등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에 따르면, 터보차저 제조업체인 IHI사는 국내 합작사인 현대위아와 3500만 달러를 투자, 서산 오토밸리에 2만㎡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본격 생산함
- 터보차저 시스템은 버려지는 자동차 배기 에너지를 터빈의 회전력으로 변환시켜 엔진의 출력 및 연비를 향상시키는 장치로, 그동안 국내에 기술이 없어 부품 조립 형태로 완성차에 납품돼 왔음
- 도는 IHI의 이번 투자 결정에 따라 터보차저 시스템 핵심기술이 국내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ISEL은 플렉시블 오엘이디 디스플레이용 필름(곡면 휴대폰 액정 등에 사용) 등을 정밀하게 자르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임
- 이 회사는 이번에 1000만 달러를 투자,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단지에 8105㎡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
- 정밀커팅 기계는 국내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현재 ISEL이 삼성전자 등에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음
- JCU사는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산단 외투단지에 9448㎡ 규모의 전자부품 등 표면처리 약품 생산 공장을 건립, 내년 9월부터 제품을 생산
- 표면처리 약품은 역사가 짧아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원천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해질 전망
- 도는 이번 3개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로 도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 국내에 확보되지 않은 3개사의 기술을 도입, 국내 완성제품 기업들의 가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봄
- 도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직접고용 200명, 연간 매출액 1조48억원, 수입 대체 6050억원,

생산유발 1조3764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이날 협약식에서 카스야 JCU 사장 등 일본 기업 대표들은 “충남은 세계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이 크지 않고, 고속도로와 철도, 무역항 등 물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함
- 안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상황에서도 도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 강소기업의 투자가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며 “IIH사와 ISEL사, JCU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13.11.26] 도지사·시장군수 총출동 “충남에 투자하세요”

- 26일 서울서 ‘내포시대 원년, 100년을 여는 투자유치설명회’ -
- 도 투자 프로젝트 소개·대기업 구매 설명·투자상담 등 진행 -
- 충남도는 26일 서울 매리어트 호텔에서 ‘내포시대 원년, 100년을 여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
  - 안희정 지사와 이준우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내포신도시 및 도의 투자 프로젝트 설명, 대기업 구매 설명, 기업 성공사례 발표, 투자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됨
  - 이날 행사는 특히 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 동참으로 상당수 협력업체가 참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음
  - 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대덕특구 등에 인접해 있어 고급인력이 많고, 교통 등 인프라가 풍부하며, 대중국 물류 거점, 환황해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지난 5년간 100인 이상 153개 기업이 충남을 선택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 200여개가 충남에 터를 잡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함
  - 또 “충남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1위, 국내기업 유치 1위, 1인당 GRDP와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전국 2위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탕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확장 신청을 9개월 만에 처리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충남도는 기업들이 초기에 쉽게 정착하고, 설립 후에는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진행된 내포신도시 투자 설명에서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통과 인프라 구축 ▲주거·문화·교육 등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 계획 등 내포신도시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첨단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의 투자 프로젝트 설명을 통해 ▲충남 경제의 현 주소와



핵심산업 지원 ▲상생산단 조성 ▲산업단지 현황 및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며 “충남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이와 함께 대기업 구매 설명회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제철이 각 기업의 구매정책 및 향후 투자 방향을 소개하고, 일진전기가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함
- 한편 도는 지난 25일 고도기술을 보유한 일본 3개 기업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 민선5기 들어 모두 24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함
- 올해 국내기업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달 말까지 562개 업체를 유치, 1조5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1만8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 됨

### ['13.11.26]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살립시다”

- 道, 연말연시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활동 팔 걷어-
- 충남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관내기관, 기업, 단체에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활동에 나섬
- 도는 올해 초부터 설과 추석명절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하도록 도내 소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음
- 또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총 195개 기관·단체·기업체와 39개 시장이 자매결연해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활용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56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금액은 259억원에 달함
- 도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상인대학 등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등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도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인 3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함
-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이며 도내 50여개 시장과 전국 1240여개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13.11.27] 도내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모색

- 제4차 고용포럼 개최 ... 전문가 등 60명 참석 발표·토론 진행 -
- 충남도는 27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고용 서비스 기관들의 협력 강화와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제4차 충남고용포럼'을 개최
  - 도내 고용 서비스 기관 전문가, 도와 시·군 고용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됨
  - 발표는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정영현 한국고용정보원 실장이 '충남지역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도내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짐
  -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도내 고용 및 인력 양성 동향, 취업 지원 동향 등을 살피고, 지역 단위 기업의 인력 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제안
  - 또 정 실장은 정책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도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옴
  -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남의 고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함

## ['13.11.2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공신화 썼다

- 28일 13개국 41개사 해외바이어와 도내 104개 업체 참여 -
- 4개社 1130만 달러 수출계약·3억1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충남도가 실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3억1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1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됨
  - 충남도는 2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
  -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코트라 충청권지원단(단장 어성일)과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상하이, LA)가 공동으로 발굴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미주 등 13개 국가 41명의 해외바이어와 도내 104개 기업이 참여함
  - 이번엔 참가한 도내 수출기업은 디스플레이, 광학, 화학, 화장품, 이·미용품, 건축기자재,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우수 기업으로, 신규 해외시장과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음
  - 참가기업 중 서천에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A사는 방글라데시 바이어와 3년간 800만

-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림
- 또 금산의 B사와 보령의 C사는 말레이시아 식품 바이어와 각각 50만 달러와 2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했고, 아산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D사도 우크라이나 바이어와 26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쏟아짐
-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그동안 도가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했던 해외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박람회 사업을 통해 발굴된 해외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도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수출지원 전략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
-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충남은 FTA 확산 흐름을 타고 수출기업의 무역영토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거래를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내년에도 한 차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

## ['13.12.2] 내포신도시 첫 기업유치 성공

- 우수AMS(주), 2016년까지 335억 투자 생산라인 신설 -
- 바스프·제이텍 등은 내포신도시 10km 반경 내 입주 -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첫 기업 유치에 성공. 안희정 지사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종인 우수AMS(주) 대표, 신우성 한국바스프(주) 대표, 장두훈 (주)제이텍 대표, 정규식 미원화학(주) 대표, 유영균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준원 공주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등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함
- MOU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1435억원을 투자해 공주와 홍성, 예산 지역 산업단지 등에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함
- MOU 체결 기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우수AMS(주)로,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 내 산업용지 3만3000㎡의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335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신설함
- 지난 1983년 설립한 우수AMS(주)는 변속기 부품과 엔진 부품, 전기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 본사는 창원에 있으며, 종업원 350명에 지난해 매출액 1480억원, 우수정기 등 관계사까지 포함한 매출액은 2370억원을 기록한 유망 기업임
- 우수AMS(주)의 이번 투자 결정은 충남의 공장입지 환경과 연관 인프라가 우수한 데다,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그룹 주요 계열사가 도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에 공장과 연구동, 사무동,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사업장 신설을

통해 전기자동차 부품 등 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며, 2014년 첫 삽을 뜨고 2016년까지 투자를 완료함

- 도는 우수AMS(주)의 내포신도시 생산라인이 구축되면 12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조기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는 또 국내 유망 기업들이 내포신도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3개 기업과는 조만간 투자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날 우수AMS(주)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국바스프(주)와 (주)제이텍은 내포신도시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예산군 삽교읍 예산일만산업단지에 새롭게 등지를 틀게 됨
-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한국바스프(주)는 8만2645㎡의 부지에 2015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하고, 집진기 생산업체인 (주)제이텍은 1만6529㎡의 부지에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함
- 또 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는 미원화학(주)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공주 탄천 산업단지 내 6만9042㎡의 부지에 2016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함
- 도는 이번 4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향후 4년간 1718억원의 생산유발과 1508명의 고용창출, 72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각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9548억원의 생산액과 2395억원의 부가가치, 1054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약속함
-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며, 우수AMS(주)의 이번 투자 약속은 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함
- 안 지사는 또 “각 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는 시·군과 협력해 기업들이 충남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임

## ['13.12.2] 서해도시가스(주) 온정의 기탁금 1억원 전달

- 2일 안희정 지사에 성금 전달 ... 정기적 봉사활동 등 귀감 -
- 2013년 연말을 앞두고 동절기 추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 충남도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 김영진 대표이사는 2일 내포신청사를 방문,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억원을 기탁
  - 이날 안희정 지사에게 전달된 후원금 1억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

- 이외에도 서해도시가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이 서산연탄은행에 연탄 1만여장 지원하고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 2700여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함
- 이와 함께 직원들이 직접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가스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함
- 또 관계자는 “서해도시가스㈜는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교육발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서해도시가스㈜의 성금 기탁을 계기로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
- 한편, 당진시 당진읍에 소재한 서해도시가스㈜는 지난 1996년 당진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 현재 충남도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음

### ['13.12.3] 충남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 ‘호평’

- 4개월 만에 2개 업체 1184만 달러 수출계약…맞춤식 지원 성과 -
- 충남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참가업체가 해외 수출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는 등 사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본격 시작된 ‘충남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사업시작 4개월여 만에 118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
- 이번 사업에 참가한 아산시 소재 A사는 자동차부품을 독일 B사에 오는 2015년부터 5년간 1114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아산시 소재 C사는 가정용 쿨웨어제품을 말레이시아 D사 등에 70만 달러 수출하는 성과를 올림
- 이들 업체가 참여한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은 도가 참가업체를 모집해 사업비를 지원(50%)하고, 코트라 본사와 해외무역관이 업체별 사업 로드맵에 맞춰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충남도와 코트라는 2014년에도 참가업체를 추가 모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거래선 다변화, 수출품목 확대,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인증·등록 등의 수출증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마케팅 사업비의 50%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참가업체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높다”면서 “대기업 의존형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충남의 탄탄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함

- 코트라 권오석 기업역량강화실장은 “참가업체별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체와 함께 뛰면서 직접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13.12.3] 농공단지 '제2의 도약' 발판 놓는다

- '기업·민생 탐방' 안희정 지사,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가져 -
  - 서민경제 현장을 살피고, 각 주체와의 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업·민생현장 탐방'을 진행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일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음
  - 예산 신암농공단지 (주)비츠로셀 회의실에서 도내 농공단지협의회장과 관계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지원 정책 설명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 인근 기업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 30여년간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견인하면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으나, 현재는 농어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등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면서 안 지사는 “도는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9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노후기반시설 개선과 인력난 해소, 제도 및 규제개선, 경영·판매·연구개발 지원, 상생사업 추진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안 지사는 이어 “도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양적·질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 생산과 소득, 소비가 선순환 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임
  - 도는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으로 ▲노후기반시설 개선 123개소 585억원 ▲일자리 종합센터 16개소 운영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 완화 등 제도 및 규제개선 4건 ▲농공단지 생산품 공공구매 530억원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정 등 지식재산권 지원체제 구축 ▲지역주민 우선 채용 450개업체 5,079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과 상생사업 등을 추진 중
  - 앞으로는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개선 ▲충남 비즈(Biz)콜센터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입주기업 체질 개선 ▲일자리 종합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 종합지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연구개발



- 지원과 농공단지 기업의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공단지협의회와 연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활성화 시책에 반영할 계획
- 도내 농공단지는 지난 6월 말 현재 모두 90개소(조성 중 18곳 포함)로 전국(447개)에서 가장 많으며, 940개 입주 업체가 2만7,94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생산액은 2조8,000억원이며, 수출액은 4억7,800만 달러로 집계
- 한편 안 지사는 앞선 지난 9월 3일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10월 4일에는 전통시장 상인 등 150여명과 전통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에는 중소·중견기업 CEO 100여명과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 ['13.12.4] 외국인직접투자 민선5기 목표 조기달성

- 올해 11월 기준 FDI 신고금액 5억4000만달러...전년동기비 14% ↑ -
- 충남도는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11월 기준)이 전년동기 4억7500만 달러 대비 14% 증가한 5억4000만 달러로 전년도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로써 민선5기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11월 현재 29개 기업 25억4500만 달러로, 12월 유치계획인 1개 기업을 추가하면 당초 목표치인 500만 달러 이상 우량기업 30개 유치 계획을 연내에 조기 달성하게 됨
- 충남발전연구원은 올 한해 5억4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 6043억원, 지역생산액 1조 7353억원, 고용은 1만21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 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 원화가치의 상대적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상과 같은 투자위축 요인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는 분석
- 그동안 도는 외자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외자유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경제파급효과, 환경성, 반외자정서, 인센티브 분석 등 4대 항목을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자유치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도는 투자유치 MOU 체결 시 고용창출 및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적극 동참토록 해 외자유치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했음
- 이와 함께 도는 외국기업의 현지토착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외투기업 지원센터 설립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외국인전담진료센터 확대지원 ▲비즈니스 호텔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외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천안권역에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임대형 외투지역을

33만6000m<sup>2</sup>(10만평)를 조성하는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음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민선 5기 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의 핵심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일본과 독일의 부품·소재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함

## ['13.12.4] 내포시대 충남경제 발전전략 모색

- 4일 ‘도청이전 1주년 기념 세미나’...주제발표·토론 등 진행 -
  - 도청이전 1주년을 기념해 내포시대 충남도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정책 세미나’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음
  - 도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박원식 한국은행부총재, 장광수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함
  - 이날 행사는 ‘내포시대 충남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박원식 부총재의 인사말에 이어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과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도청 이전은 내포신도시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로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으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직 도로, 항만, 문화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과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오리 모두 내포시 건설의 선구자로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함
  -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이성우 실장은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중국 물류 거점화 전략’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확보 ▲배후 산업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카페리항로 개설 ▲대중국 복합물류체계 구축 ▲대중국 자동차부속품 클러스터 구축 ▲대중국 물류비즈니스모델 개발 ▲중국기업 투자유치센터 설립 등을 제시
  - 김정연 연구위원은 ‘충남권 중심도시로서의 내포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내포신도시 자체의 성장동력 및 자족성의 조기 확보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예산군의 상생적 지역발전 도모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산, 당진, 보령, 태안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권으로의 발전방안 등을 제시
  - 한편, 이번에 개최한 도청이전 1주년 기념 경제정책 세미나는 충남도와 한국은행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됨



## ['13.12.10] '충남 수출' 무역 트리플크라운<sup>1)</sup> 이끈다

- 10일 무역의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대통령표창 등 42명 영예 -

- 충남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 충청남도 수출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함
  -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부의장,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부 포상 전수와 '충청남도 수출탑' 및 '수출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됨
  - 이날 시상식에서는 ▲3억불 수출탑 천안 소재 (주)디아이다 ▲1억불 수출탑 예산 소재 (주)녹수 ▲3000만불 수출탑 천안 (주)회명산업 등 26개 업체가 정부 수출탑을 전수받음
  - 정부 개인포상은 ▲(주)에스에이씨 한형기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주)녹수 최상열 부장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음
  - 이외에도 ▲케이유플피(주) 이인주 차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에스티에이프로덕트(주) 조원영 대표이사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삼화엠테크(주) 김윤택 부사장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
  - 특히 올해 정부 수출탑 수상업체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16개 업체가 줄어든 1526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 충남도 소재 기업은 총 75개사가 이름을 올림
  - 충청남도 수출탑은 빌드캠(주), (주)세라테크, (주)우성금속 3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충청남도 수출 유공 표창은 케이엠피(주) 이형집 대표이사, 수출 지원 유관기관 유공자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박초롱 대리가 각각 수상함
  - 충남도 수출탑을 수상한 빌드캠(주)는 공주시에 위치한 바닥재 생산업체로 수출실적 전년대비 541%의 신장률을 기록함
  - (주)세라테크는 천안시에 위치한 마사지기 생산업체로 국제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174% 늘었고, (주)우성금속은 예산 소재 펌프, 케이싱 생산업체로 국내외 기술 및 혁신인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127% 늘었음
  - 충남도 수출유공 표창을 수상한 이형집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금속인쇄업체인 케이엠피(주)를 이끌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안희정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수출 540억불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노고를 치하함
  - 안 지사는 “앞으로도 21세기 무역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 향상으로 활발한 국가간 경제활동이 상호교류와 세계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 협력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함

1) 무역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 :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 (전세계 4개국만 달성 :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

- 한편,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6% 증가한 5620억불로 세계 수출 순위 7위 수성과 함께 무역 1조불 달성, 사상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를 뜻하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 기대됨
- 이 가운데 충남은 지난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0% 늘어난 540억 6159만 9000불을, 수입은 1.5% 감소한 282억 722만 2000불을 기록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흑자규모 기준 2위, 전체 수출규모 기준 3위를 달리고 있음

## ['13.12.10] “기술혁신으로 ‘벤처 2세대’ 대비해야”

- ‘기업·민생현장 탐방’ 안희정 지사, 벤처산업 정책토론회 가져 -
- 충남도 내 벤처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처산업 정책토론회’가 10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림
  -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기업·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안희정 지사와 도내 벤처협회 회원, 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
  - 토론회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발표는 백운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이 ‘창조경제 시대와 벤처창업 정책’을, 김흥기 한남대 교수가 ‘충남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졌음
  -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이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올해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되며,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로 전국 357억 달러의 72%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안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2만여 벤처기업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산업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재 양성, 기술혁신 등을 통해 ‘2세대 벤처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안 지사는 또 “충남은 과학벤처와 대덕특구가 인접해 있고, 창업 보육 활성화 사업 및 벤처프라자·벤처펀드자금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를 성장시킬 환경과 토양을 갖추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공과 성장은 충남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은 만큼, 도내 벤처기업 비중을 전국 3.4%에서 10% 수준으로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창업보육센터, 투자조합(펀드) 조성 운영, 충남지식재산센터 지원 사업 등 ‘창업단계’ 3개 사업과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충남테크비즈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등 ‘성장단계’ 4개 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고산업,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연구개발 지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안 지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아산에서 과수원방제기, 가축방역 특장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성티앤아이(대표 황인성)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 대표와 대화를 나눴음

## ['13.12.12] 道, 2013 노사민정 협력 우수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전국평가 결과...노사관계 안정 및 신뢰구축 결실 -
- 충남도가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이로써 도는 지난 2010년, 2011년에 이어 노사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둠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도는 ▲고용·노사관계 거버넌스 정착지원 ▲노동 분야 사회책임 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및 인적개발 지원 ▲노사갈등 예방 및 사전조정 등을 통해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사회책임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충남도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노사 의견을 도정에 반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와 함께 도는 유성기업 등 해직 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심리치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안정 및 갈등예방 정책을 추진해 지역 노동정책 발전에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앞으로도 충남 노사민정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한편, ‘201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은 12월 20일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됨

## ['13.12.12] “기업 맞춤형 인력 키워 미스매치 해소”

- 12일 경제진흥원서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립회의 -
- 충남도는 12일 경제진흥원에서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인력부조화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도와 충남기업연합회(회장 최호상)이

공동으로 도와 산업계 등 노·사·민·정 대표와 기업체 및 업종별 단체,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향후 충남지역 전략산업분야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지역공동훈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및 훈련과정 개발, 지역 교육 훈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철저하게 수요자 요구에 맞춘 산업계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임
- 도와 충남기업인연합회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의 ‘201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향후 6년간 국비 144억원을 지원받게 됨
- 도는 이번 위원회 출범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훈련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배출로 인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인력의 미스매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구직자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 ['13.12.12] 산업단지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첫발

- 11일 심의위 송선일반산업단·예산미니복합타운 조건부 가결 -
-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안), 예산미니복합타운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함
  - 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는 금속 가공제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조건으로 송선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가결처리하고,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단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가결처리함
  -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말까지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됨
  - 공주시 송선동 산 32-49번지 일원에 31만4379㎡ 규모로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5년 완료될 경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인원 1579여명, 연간 4940억원의 직접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또 예산군 고덕면 일원의 4개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만8027㎡ 규모로 추진되는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고용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공주 송선 일반산업단지,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13.12.16] 충남, 기업-농촌간 아름다운 상생 결실

- 25개 기업 추가 협약 총 109개사...구매효과 200억원 돌파! -
- 충남도가 3농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의 참여 기업이 총 109개 확대돼 구매효과가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과 농촌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산·계룡·당진시에 위치한 25개 기업과 구내식당 위탁업체 1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식을 가짐
-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과 구내식당 위탁업체는 쌀과 육류 등을 도내 생산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협약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됨
- 특히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이 동참해 지역 농·축산물 구매효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전망
- 도는 이번에 쌀 1409t, 육류 137t, 양념류 186t 등 총 2487t, 92억원의 지역 농·축산물 구매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은 지금까지 109개 기업이 참여해 쌀 4863t, 육류 290t, 양념류 282t 등 총 6514t, 209억원의 구매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축산물 선순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또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유공자로 신경석(삼성디스플레이), 정철규(현대제철), 강선혜(삼성웰스토리), 이시형(아워홈), 한상은(천안시), 박문수(예산군)씨 등 6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
- 안희정 도지사는 “지역 농·축산물 소진촉진 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3농혁신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과 위탁업체의 협조로 협약 이행사항이 실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한편, 도는 내년부터는 올해 포함되지 않은 수산물을 포함시켜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중국 내수기업의 프리미엄 전략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 디지털 체험
  - 스마트 뉴딜(New Deal)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 중국의 對아세안 경제무역 협력 강화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한중일 관계 개선, 산업협력부터가 시작이다!
  - 한국경제, 일본 닮고 있다!
  - 원화 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 고령화시대 급진전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생애재무설계
  - 원화 절상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2014년 구내외 경제전망, 성장률 3% 중반의 완만한 회복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진단
  - 한국 제조기업 수익성 장기 하향 추세
  -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 디플레이 경계심 높여야
  - 중국 3중전회, 집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 지금 중국은 '신틱구' 전성시대, 외자기업 혜택 줄지만 차별도 줄어든다.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
  - 가계대출과 시스템적 리스크 : 신용정보의 유용성
  - 중국의 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 위상 및 파급 영향
  -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 중국의 금리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